

2023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4년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산업 전반

2023년 북한산업은 전년에 비해 다소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이후 UN 대북 경제제재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2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대외무역이 전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0년과 2021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북한경제와 산업 위축의 일차적인 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방역 완화와 함께 2022년 하반기 이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2억 9천만달러, 수입은 20억 3천만달러로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23억 2천만달러에 달하였다. UN 대북 경제제재로 금속 및 금속소재, 기계, 전자제품과 수송기계 등 자본재의 수입과 석탄 및 철광석 등 핵심 수출품의 수출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는 화학제품, 섬유류, 식품류 등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입과 가발 등 새로운 노동집약적인 가공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는 경공업 등 제조업과 최종재의 유통 부문, 그리고 수출용 제조 부문의 생산활동을 자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년째 지속되고 있는 UN 대북 경제제재로 신규 설비투자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금속 및 기계류 등의 수입이 제약됨에 따라 북한경제의 회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공식적인 무역과 함께 전자제품이나 기계류 등 제재품목의 비공식적인 수입과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UN 경제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라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까지 토목공사 중심으로 느리게 진행되던 주요 설비투자 사업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핵심 설비의 제작과 설치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비공식적인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의 수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12월 말의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공작기계 생산량이 2020년의 5.1배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역시 수입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의 생산 증가율이 유독 높은 것도 방역태세 완화와 함께 전자 및 기계 부품 등 제재품목의 비공식적 수입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강력한 방역조치는 석탄의 비공식적인 수출도 감소시켰는데, 2023년에 이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석탄의 밀수출도 증가하거나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북러관계의 진전은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군수부문의 일부 생산 확대를 제외하고는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무기 공급의 대가로 외화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군수품을 대가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러시아 무기 공급에 따른 군수품의 추가 생산은 기계공업의 생산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수출 가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북한경제 및 산업에 불확실성을 더해 주던 기후조건은 2023년에는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봄철 가뭄이 2023년에도 반복되었지만, 연간 강수량 등 기후조건은 농업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수력발전 및 광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럭을 통한 무역이 여전히 제한되고, 외국인의 방북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은 2022년 8월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 2023년 북한은 국내 경제활동에 한해서는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시장의 개장 시간 단축 등의 조치는 이미 해제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던 대규모 실내 경제 이벤트가 2023년에는 ‘경공업 발전 2023’을 비롯하여 연간 내내 다수 개최된 것도 방역태세 전환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의 완화는 무역의 확대와 함께 2023년 북한산업 회복세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록 5~8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격리를 중심으로 최대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그에 따라 상업·유통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송과 노동력 현장 투입이 어려워지고, 자재 공급 부족도 발생하여 발전, 금속, 광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 코로나19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2023년에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대내외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 제반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지만 회복된 것은 당연하다. 이 요인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자원이 투입된 농업과 건설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3년차로서 이 계획의 완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려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투자와 생산 양 측면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금속과 화학공업, 그리고 발전부문의 생산역량 확충 및 기존 설비의 정비와 공정간 불균형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비보강 사업을 2023년에 기본적으로 완수한다는 목표 하에 설비투자 사업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2023년 초 알곡(곡물), 선철과 압연강재, 질소비료, 비철금속, 일반천, 석탄, 철도수송, 주택건설 등 12개 품목을 12개 중요고지라는 명칭 하에 선정하고, 기존의 경제계획과 별개로 이들 품목의 물적 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이들 12개 품목의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북한의 산업은 2022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가 2023년에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소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김책제철소 산소열법용광로 건설과 15,000m³/h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가 완료되고, 단천발전소 1단계 발전기 설치가 진행되는 등 대형 메탄을 생산공정 건설을 제외한 핵심 설비투자 사업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하였다. 곡물의 생산이 목표를 3% 초과달성한 것을 비롯하여, 광업과 발전, 건설, 금속, 화학 및 기계, 경공업, 그리고 수송부문 등에서 소위 12개 중요고지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12개 중요 고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동기 등 다수의 품목이 전년 대비 크게 생산이 증가하였다고 주장되었다.¹⁾

〈표 1〉 노동당 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성과

12개 중요고지(품목)	목표 달성 정도
• 알곡(곡물)	3% 초과달성
• 전력, 석탄, 질소비료	100% 달성
• 유색금속(비철금속)	31% 초과달성
• 통나무	9% 초과 달성
• 시멘트, 일반천	1% 초과달성
• 수산물	5% 초과달성

1) 품목별 전년 대비 생산 증가율을 보면, 전동기 120%, 변압기 108%, 베어링 21%, 전기아연 40%, 연 21%, 종이 13%, 소금 10%, 화장품 9%, 판유리 0%, 마그네샤 크링커 4% 등이다(『노동신문』, 2023. 12. 31).

12개 중요고지(품목)	목표 달성 정도
• 철도화물수송량	6% 초과달성
• 살림집	건설중인 주택 9% 초과달성
2020년 대비 생산	증가율
• 국내총생산	40%
• 삼화철	250%
• 선철	170%
• 압연강재	90%
• 공작기계	410%
• 시멘트	40%
• 질소비료	30%

자료: 『노동신문』(2023. 12. 31).

북한의 12개 품목의 생산성과 보도는 어느 정도 실제 성과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품목의 상반기 생산성과를 노동신문을 통하여 보도한 바 있는데, 품목별로 어느 정도 일관성이 확인된다.²⁾ 또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생산 증가가 발전량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 연중 지속된 질소비료, 선철 및 압연강재 등의 생산성과 보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품목에서 실제로 생산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12월의 당 전원회의, 2024년 1월의 내각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의 등 모든 핵심 정치 이벤트에서도 2023년 인민경제계획 전반이나 각 산업별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연중 각 산업부문이나 주요 기업의 월별, 분기별 경제계획이 달성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연말이나 2024년 연초에 연간 계획의 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노동신문 등 공식적인 매체를 통한 보도는 없었다. 따라서 생산활동이 12개 품목에 집중되었으며, 여타 품목에 대한 자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경제계획의 성과가 저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2개 품목이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각 품목의 생산목표가 2022년의 실제 생산량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생산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해당 산업 전반의 경제계획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

금속 및 기계공업의 생산활동 증가와 금속소재와 기계류의 비공식적인 수입 확대로 신규 투자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UN 대북제재의 영향이 다소 감소되었을 수는 있지만, 경제제재는 여전히 북한경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약조건이다. 비공식적 수입이 강력한 방역조치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2017년 이전 수준으로

2) 『노동신문』(2023. 7. 5).

3) 예를 들어 전원회의에서 석탄 생산목표가 100% 수행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1월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토론에서 석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고 발표되었다(『노동신문』, 2024. 1. 16(b))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비공식적 수입은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3년 북한산업이 전년에 비해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추세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중기적인 하락 국면 하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II. 산업별 동향

1. 전력과 광업

발전은 12개 중요고지에 포함되어 2023년에 강력한 생산 확대 드라이브가 걸린 부문 중 하나였다. 강수량 등 기후조건이 수력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료탄 공급과 설비 정비보수 등으로 화력발전의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경제계획과 12개 중요고지의 전력 생산목표는 2022년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생산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생산 성과가 다수 보도되었다. 노동신문은 10월 18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십억kwh 전력을 증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⁴⁾ 10월 말 기준 11월 초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생산이 12%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노동신문이 이 시기 수력발전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에,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에 비해 더 많이 증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화력발전소의 하나인 북창화력발전소는 수십년 내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보도되었다.⁵⁾ 그리고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12개 중요고지 생산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증산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가 다수 보도되고, 12개 생산목표 달성에 대한 발표가 어느 정도 실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 생산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비철금속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되었는데, 이 역시 전력 생산 증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도 발전부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수로 건설 등 토목공사 중심으로 느리게 진행되던 단천발전소 건설이 2023년에는 발전기 제작, 현장 수송 및 설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⁶⁾. 2023년 중으로 완공되지는 못했지만,

4) 『노동신문』(2023. 10. 18).

5) 『노동신문』(2023. 11. 7).

6) 『노동신문』(2023. 7. 12.).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발전소인만큼 2024년 하반기 이후에 실제 전력 생산이 개시된다면 전력 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업 역시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석탄이 12개 중요고지에 포함됨에 따라 석탄광업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상반기에 석탄 생산계획을 4%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12월의 전원회의에서 12개 중요고지 생산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차 회의의 각 부문별 토론에서 석탄부문 대의원은 2023년 석탄 생산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⁷⁾ 석탄 생산목표가 전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석탄광업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방역강화로 2020년과 2021년의 석탄 밀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2년 하반기 이후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석탄 밀수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은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업은 보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소멸되고, 철광석의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김책제철소나 보산제철소 등 제철부문의 생산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전년 수준의 생산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 광업도 상반기 12개 중요고지 중 비철금속 생산계획이 46% 초과 수행되었고, 비철금속 생산목표가 크게 초과 수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의 태풍과 수해로 광업 부문은 2021년은 물론이고 2022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는데, 2023년에는 이러한 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제조업

제조업, 특히 제철제강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은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 이후 큰 폭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중화학공업이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9.5% 성장하여 북한경제의 -0.2%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⁸⁾. 그러나 2023년에는 중화학공업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공업에서는 설비투자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김책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병용광

7) 『노동신문』(2024. 1. 16).

8) 한국은행 북한경제 자료.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검색일 2024년 1월 21).

로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15,000m³/h의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 공사도 완료되었다.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과 증주파 유도로 건설, 천리마제강의 연속조리기 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책제철소의 신규 산소열법용광로의 생산능력은 기존 산소열법용광로 대비 1.5배라고 하는데, 이 용광로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김책제철소의 선철 생산능력은 2배 이상인 셈이다.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이 완료되면, 북한의 선철 생산능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설비투자와 함께 생산에서도 김책제철소를 중심으로 전년과 달리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5월 노동신문은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의 생산량이 조업 이후 최대에 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⁹⁾ 11월에는 조업 당시에 비해 선철과 압연강재 생산이 2배 이상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¹⁰⁾ 12월 초에는 선철과 압연강재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와 40%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¹⁾ 천리마제강도 월간 계획을 수행하였다는 보도가 지속되었다. 12개 중요고지 중 하나인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상반기에 12%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12월 말의 전원회의에서는 생산목표를 2% 초과 수행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북한이 통상 특정 품목의 생산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 실적 대비 증가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도 철근 등 금속 건재를 수요하는 주택건설과 농기계를 비롯한 기계류와 설비의 생산 등이 증가한 점도 철강재 생산량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명확한 생산 증가 요소가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의 생산 효율 증가 정도인 것으로 보여, 실제 증산 규모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비철금속 부문이다. 상반기에 12개 중요고지의 유색금속(비철금속) 생산목표가 46% 초과 수행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연말의 전원회의에서는 연간 목표가 31% 초과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다. 12개 중요고지의 생산목표가 전년 대비 적지 않게 상향되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목표를 30%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도된 것이다.¹²⁾ 실제 증산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비철금속 광물 공급 증가와 전력사정 개선 등 공급 측 요인과 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 증가 등이 결합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은 비료 부문에서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흥청년화학과 흥남비료공장의 질소비료 생산을 시비년도 비료 생산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완수했다는

9) 『노동신문』(2023. 5. 9).

10) 『노동신문』(2023. 11. 8).

11) 『노동신문』(2023. 12. 13).

12) 비철금속을 제외하고는 12개 중요고지 생산목표를 10% 이상 달성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보도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 보도가 이어졌으며, 12개 중요고지의 하나인 질소비료의 생산목표도 달성되었다고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질소비료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타 분야에서의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 화학공업 전반적으로 생산 감소 요인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공업은 2023년에 성과 보도가 두드러진 산업 중 하나이다. 농업 부문 지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기계 생산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2022년에는 군수부문에 이동식벼종합탈곡기 등 소형 농기계 5,000대를 공급한 것이 주요 성과였지만, 2023년에는 트랙터, 이동식벼종합수확기, 탈곡기 등 10,000여 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금성트랙토르공장뿐만 아니라 대안중기계공장, 락원기계공장, 라남탄광기계공장, 구성공장 기계공장 등 다수의 중대형 기계공장이 참여하였다. 기계공업성의 농기계 생산계획은 9월에 완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핵심 농기계 공장인 금성트랙토르공장은 2022년 1차 개건을 완료한 이후, 2023년 11월 2차 개건을 시작하였다. 김책제철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및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제강 등의 대형 설비 설치, 그리고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등 대형 설비투자 사업의 핵심 설비의 제작 및 설치가 진전된 것도 기계공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이 밖에 각지의 밀가루가공공장, 학생교복공장 등 다수의 중소기업 공장이 건설되었는데, 기계류의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산업설비의 건설 확대는 기계공업의 생산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계 및 설비제작의 성과가 반영되어 9차 전원회의에서 전동기와 변압기, 베어링 등이 전년대비 생산량이 각각 120%, 108%, 21% 초과 수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작기계 생산이 2020년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건설자재는 주택건설, 관개시설 확충, 제조설비의 건설 확대 등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십 년래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와 2023년 말까지 최고 생산실적을 다시 돌파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등 2개의 핵심 시멘트 공장에 성과보도가 집중되었다.

경공업은 내부에서 원자재가 조달되는 일부 식품가공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가동률과 수입 간의 연관성이 높다. 2023년에는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섬유류나 식품원재료, 화학소재 등 비제재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한 경공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김정은이 강조한 학생복과 학생가방 등의 생산성과가 보도되었으며, 12대 중요고지 중 하나인 일반천의 생산목표가 1% 초과 달성되었다는 보도 정도가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가발류의 수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7년 경제제재로 석탄, 의류 및 농수산물 등 핵심 수출품의 수출이 봉쇄되자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도모하였는데, 시계부분품 등 주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임가공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간재의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 중간재 요구가 적은 생산 등이 새로운 수출품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는데, 방역태세의 전환과 함께 다시 수입중간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인조가발과 속눈썹 등이 새로운 핵심 수출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간재의 수입도 1~11월 기간 1억 4,500만달러에 달하였다. 2017년 이전 대표적인 임가공 수출품은 의류였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임가공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 섬유류를 가공하여 생산한 의류를 수출하는 의류 임가공 수출이 비공식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대중국 섬유류(hs 54, 55류) 수입은 2022년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2023년에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김정은이 강조한 학생교복 등 내수용 수입이 주로 늘어났겠지만, 수출용 의류 가공을 위한 원단의 수입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2020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신규 공장 설립이 다시 증가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 생산 증가와 밀가루 가공식품 생산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신의주 등 각지에서 밀가루 가공공장이 건설되었으며, 학생교복 생산공장도 각지에서 건설되었다. ‘경공업발전 2023’ 등 다수의 경공업 관련 행사들이 평양 등에서 개최되었다는 점도 경공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완화와 연관된 것이기도 한데, 지역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공업의 생산 및 판매 여건도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2023년 북한의 경공업은 중간재의 수입 확대와 새로운 수출품의 등장, 그리고 방역 완화 등으로 2022년에 이어 성장세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13) 다만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22년에 이미 5% 이상 성장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3. 서비스업과 건설

수출입 물량의 확대, 경공업 생산의 증가, 방역 완화에 따른 지역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의 대폭 완화 등에 따라 상업·유통, 운수, 숙박 등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년에 이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주택건설과 입주가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외국인 관광은 재개되지 못하였지만, 북한정부가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포함하는 관광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내국인 관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공업발전 2023’ 등 다수의 경제 관련 행사가 평양 등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행사는 상품의 판매도 꾀하기 때문에, 운수, 숙박과 상업 등의 서비스업의 매출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건설업의 생산은 활발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은 증가하였지만, 산업시설을 비롯하여 여타 건설활동은 위축되었는데, 2023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건설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평양 5만세대 건설 중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가 준공되었으며, 2단계 1만세대가 착공하고, 서포지구의 4,000세대가 준공하는 등 평양의 주택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주택 건설계획은 2022년의 2배인 5만 8천여 세대인데, 40개의 시군에서 건설이 완료되는 등 건설계획이 9% 초과 수행되었으며, 2024년 봄에는 모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한다. 2023년에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수로 보수 및 관련 시설의 건설·확장 공사가 다수 진행되었다. 관개부문은 9차 전원회의의 농업정책의 주요 성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에너지절약형 산소열 범용광로나 단천발전소 1단계 등 대규모 설비건설 사업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학생교복, 학생신발, 밀가루 가공공장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시설도 다수 건설되었다. 2020년 이후 위축되었던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 사업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III. 평가 및 전망

1. 2023년 평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전년에 비해 성장하거나, 최소한 전년 수준은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의 확대, 코로나19 방역 대폭 완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후조건, 핵심 품목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 등 단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에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력은 양호한 강수량과 연료탄 공급 증가, 그리고 설비의 보강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 등에 의하면 발전량은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전년 대비 상향된 생산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한다. 광업은 정부의 증산 노력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로서, 특히 석탄 생산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고 보도되는 등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과 비철금속광물도 해당 광물을 가공하는 부문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생산이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022년에 50% 가까이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철강은 김책체철소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계공업은 설비투자의 진전과 농기계 공급 확대 등으로 제조업 중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공업은 질소비료 생산 증가가 확인되지만, 여타 부문의 성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활동의 증가에 따라 시멘트 등 건설자재의 생산도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경공업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가발 등 새로운 수출품이 대두되었으며, 지역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시장 여건도 개선됨에 따라 전년에 이어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22년에 5% 이상 성장한 바 있어 2023년의 성장은 제한될 수 있다.

농촌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하고, 관개시설 공사, 설비투자 등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건설업은 전년에 이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 경공업 생산 증가, 지역 간 이동 제약 완화, 대규모 행사 및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상업·유통, 운수, 숙박, 관광 등 서비스업도 전년에 이어 성장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산업별로 보아도 전년에 비해 생산 감소 요인이 두드러지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의 성장은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에 따른 추세적인 후퇴 국면에서의 단기적인 반동의 성격이 강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심 수출품의 수출 중단과 주요 자본재의 수입 감소는 북한 산업의 성장 기반을 크게 훼손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북한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그렇지 않아도 하향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북한 경제와 산업을 추세보다 크게 하락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요인이 제거되면 북한 경제와 산업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0년 이후 북한경제는 -4.5%, -0.1%, -0.2%라는 3년 연속 후퇴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202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상당 정도를 회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4년 전망

앞서 2023년 북한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및 성장하였지만, 중기적인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단기적인 반등은 반등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한계에 빨리 도달한다. 2023년 북한 산업의 반등은 비교적 강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후조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은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부는 2024년에도 12대 중요고지를 설정하고, 2024년 경제정책 기조를 생산 증가를 우선하면서 정비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등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한 생산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생산 측면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2024년에는 2023년 산업 생산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제거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23년에 북중무역이 코로나18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의 82% 수준까지 회복되었기 때문에 무역증가에 의한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증가 여지는 2023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⁴⁾. 또한 2023년에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엔데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방역완화가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면 새로운 성장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에 의해 핵심 자본재의 수입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속,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2024년의 성장세는 불확실한 기후조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3년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간재의 수입 확대를 통한 생산확대의 여지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발이 핵심 수출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발생산 공정이 극도로 노동집약적이어서 생산 및 수출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으로 2022년에 이미 5% 이상 성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본고에서는 생산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각 산업의 성과를

14) 주요 품목별로 보면 2023년에 당류(HS17)는 과거 최대치 보다 66% 더 수입되었으며, 대두유는 2016년도 규모로 수입되었으며, 플라스틱(HS39)은 최대 수입규모의 78% 수준으로 수입되었다. 공식적인 임가공 의류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섬유류는 제재 이전인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검토하고, 전망하였다는 점이다. 수요 측면, 특히 2017년 경제제재 이후 지속된 경기 후퇴에 따른 주민소득의 감소가 미칠 영향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시장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지속하고 있는 중앙통제 강화 경향, 특히 무역의 재집권화 추세 등도 북한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4년 북한산업을 전망함에 있어 2024년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발전 202×10 정책’¹⁵⁾의 영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매년 20개군에 김화군의 현대화된 지방산업 공장 수준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1년 8차당대회에서 제기되고 2022년 건설이 완료된 김화군 지방산업공장은 기초식품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4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김화군과 유사한 수준과 규모로 20개 군에서 현대화된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한다면, 매년 60-80개 정도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연간 10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을 신설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야심적인 프로젝트이다.¹⁶⁾ 경공업이라도 제조업 설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기계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데, 북한의 금속소재 공급 및 기계류 생산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설비투자 및 설비보강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2023년 12월 9차 전원회의의 경제운영 방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촌주택 건설 등 건설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이 10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이므로, 2026년에 시작될 새로운 5개년계획에 기계공업의 현대화와 함께 핵심 과제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롭게 건설될 수백개의 현대화된 지방산업공장의 존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필수 소비재의 공급에 있어서의 시장의 역할 등 경제관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신문』(2024. 1. 16(a)) 참조하라.

16) 2000년 이후 공장의 신설과 완공 등의 추이는 KIET 북한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count/kiet.do>)의 ‘신규설립’ 참조하라.

참고문헌

- 『노동신문』, 「전력공업부문이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린다」, 2023. 5. 8.
- _____, 「노동계급의 세상에 꽃피낸 5.1절의 새전설」, 2023. 5. 19.
- _____,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 부문들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 완수」, 2023. 7. 5.
- _____, 「단천1호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형 변압기 제작완성, 현지 도착」, 2023. 5. 24.
- _____,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에 필요한 발전설비 현지도착」, 2023. 7. 12.
- _____,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십억kWh의 전력을 증산」, 2023. 10. 18.
- _____, 「주체철 생산체계의 생활력 과시」, 2023. 11. 8.
- _____, 「수십년래 전력생산에서 최고실적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2023. 11. 7.
- _____, 「전력생산량, 매일 계획을 초과 수행하며 힘차게 전진」, 2023. 11. 19.
- _____, 「철강재 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드높은 열의-금속공업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생산장성률을 기록」, 2023. 12. 13.
- _____,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연설을하시였다」, 2024. 1. 16(a).
- _____, 「모든 탄광들이 들고일어나 석탄생산을 확고한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겠다」, 2024. 1. 16(b).

<웹사이트>

한국은행 북한경제 자료(<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북한산업 · 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count/kiet.do>)